7. 실질에 힘쓰는 것이 수기(修己)의 요령임을 논함

손님 주상께서 삼대의 정치를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마땅히 무엇을 먼저 힘써야 합니까?

주인 뜻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일을 하는 임금은 모두가 먼저 그 뜻을 정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왕도(王道)•에 뜻을 둔다면 요 · 순과 같은 정치와 교화도 모두 임금의 직분 안의 일이고, 패도(覇道)•에 뜻을 둔다면 한나라와 당나라의 소강(小康)•도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말에 "세금을 조금 거두는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임금께서 만약 패도에 뜻을 둔다면 규모와 제도가 반드시 한나라나 당나라보다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다시 뜻있는 선비가 탄식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선을 밝히는 이치를 연구하고 착한 본성을 다 실현하는 것에 뜻을 두면,• 구차하게 조금 성취해 보려는 논의는 마음에 들

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진작시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뜻을 두면, 세속의 일상적인 것을 지키자는 설에 얽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것에 뜻을 두면, 궁녀와 내시가 모시고 잔치하는 즐거움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임금이 띠풀로 지붕을 이고 흙으로 계단을 쌓았던 검소한 일에 뜻을 두면, 아름다운 수레나 궁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널리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것에 뜻을 두면, 혹시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는 것이 모두 임금의 근심입니다. 예악(禮樂)•을 닦아 밝히는 것에 뜻을 두면, 한 가지 정책이라도 옛 도에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모두 임금의 걱정입니다. 주상께서 참으로 이런 뜻을 세우신다면 성인을 표준으로 삼으실 것이니, 성인을 표준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배우려고 하신 다음에야 삼대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손님 임금의 뜻이 이미 섰다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 뜻을 세운 다음에는 실질에 힘쓰는 것이 첫째입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 아침이 다 지나도록 음식만 차려보았자 한 번 배부를 수 없

- 왕도(王道) : 임금이 어진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앞에 나옴.
- 패도(覇道) : 패도(覇道)는 인의(仁義)를 무시하고 힘이나 권모술수를 써서 사적인 공(功)과 이익만을 탐내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앞에 나옴.
- 소강(小康) : 소란하던 세상이 조금 안정됨. 율곡의 원문에서는 '少康'으로 표기하였

는 것처럼, 빈 말 뿐이고 실질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연의 자리에서나 상소하는 글 사이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계책과 곧은 의논이 없지 않은데도, 한 가지 폐단을 개혁하거나 한 가지 계책을 시행하는 것도 아직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다만 실제적인 효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상께서 반드시 다스리는 방도를 찾아 옛날의 도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실제적인 효과에 힘쓰고 겉치레인 형식을 일삼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이 대상을 연구하여 앎을 이루고자 한다면, 글을 읽어 그 의리(義理)*를 생각하시거나, 일에 임해서 그 시비(是非)를 생각하시거나, 인물을 강론하여 그 거짓과 바름을 구별하시거나, 옛 역사를 두루 살펴서 그 득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땅히 이치에 맞는지의 여부를 생각하여, 반드시 마음에 밝고 통하게 하여 연구되지 않은 사물이 없도록 하여, 대상을 연구하고 앎을 이루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이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한다면, 마치 아름다

음. 앞에 나옴.
- 임금이… 두면 : 앞에서 말한 도학(道學)을 말함.
- 예악(禮樂) : 예법과 음악.
- 의리(義理) :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또는 문장의 뜻과 이치.

운 여색을 좋아하듯 선을 좋아하여 반드시 얻어야 하고,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 악을 미워하여 결단코 버려야 합니다. 깊숙하게 홀로 계실 때나 은미한 가운데에서도 삼가고 두려워하여 게을리 하지 마시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때일지라도 경계하고 두려워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한결같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도록 하여,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치우치거나 기울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여 그 본체를 세우고,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하여 마음의 작용이 어디에나 통하게 합니다. 또 깨어있어 어둡지 않은 마음 본래의 밝음을 온전히 하고, 모아서 안정시키고 어지럽지 아니하게 하여 마음 본래의 고요함을 보전합니다. 그리고 드넓게 하고 크게 공정하게 하며 사물이 다가오면 순응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이 자기 몸을 닦고자 한다면,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음탕한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을 멀리합니다. 또 놀고 구경하는 즐거움을 끊으며, 게으른 기운을 몸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루하고 어긋난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법도를 따라 실천하되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을 닦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두 분 대비*를 우러러 받들어 일마다 정성스럽지 않음이 없고, 기쁜 마음을 나누어 두 분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 헐뜯거나 간사한 자를 끊

어버리며, 온화한 안색과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하고 한결같이 하여 마음이 서로 합하고 기맥이 서로 통하게 합니다. 나아가 종묘의 예*에도 공경하고 삼감을 극진히 하여 번거로운 것을 힘쓰지 말고, 오직 조상이 감동하여 이르러 오도록 마음을 써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집안을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집안사람들을 몸소 가르치시어 공경으로 힘써 거느리고, 엄숙함으로 임하고 자애로 어루만져, 왕후와 비빈(妃嬪)들은 순일(純一)한 덕*을 갖도록 합니다. 또 궁중은 엄숙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갖도록 하며, 외부와 오고가며 통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그 싹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천한 내시들은 다만 청소만 맡겨서, 집안을 다스리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려고 한다면, 널리 발굴하고 정밀하게 살피며 분명하게 시험하고 환하게 봅니다. 그 현명함이 과연 틀림이 없으면, 그를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 맡겼으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믿고, 안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맺어, 그로 하여금 그동안 쌓은 것을 펴서 정성을 다하고 재주를 다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참소하

- 두 분 대비 : 당시 두 대비로는 인종의 왕비였던 인성왕후(仁聖王后)와 명종의 왕비였던 인순왕후(仁順王后)가 있었다. 앞에 나옴.
- 종묘의 예 :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함.
- 순일(純一)한 덕 : 유교사회에서 강조하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부인의 덕.

는 말은 듣지 말고 모든 정사가 잘 다스려서 국가가 복을 받고 백성이 제자리를 얻도록, 현명한 사람을 쓰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간사한 자를 물리치려고 한다면, 말을 듣기 좋게 하는 자는 도리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피고, 행적이 분명치 않거나 바르지 않은 자는 간특함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건의하여 아뢰는 일이 없는 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없음을 알고, 지위와 봉록에만 애착하는 자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는 절개가 없음을 알며, 도학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장차 사림에 화를 입힐 사람임을 알고, 논의는 독실하지만 속은 유약한 자는 고자질하는 것을 강직한 것으로 삼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 생각이 유래한 것을 살피고 그 마음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펴서, 그 간사함이 과연 틀림이 없으면 그 경중을 따라 죄를 주는데, 가벼우면 파직하고 무거우면 변방으로 내쳐서,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백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마땅히 갓난아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에는 비록 원수의 자식이라 해도, 참으로 그 집안을 없애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놀라 일어나서 구할 것인데, 하물며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지금은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진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적막하게 보낸 지가 수년이고, 마음 아파하는 정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상께서 백성의 부모라는 마음이 아직 지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백성의 부

모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백성을 위하여 이익을 보존하고 해로움을 제거하여 장차 최선을 다할 것이니, 백성의 생활이 어찌 곤궁할 리 있겠습니까? 마땅히 걱정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백성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물어 반드시 제거해 주어서, 백성을 보호하는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백성을 교화(敎化)*시키려고 하신다면, 먼저 몸소 실천하여 인(仁)*과 사양(辭讓)의 정신을 일으키시고, 공적인 도리를 넓혀 기강을 진작시키시고, 착함과 간특함을 구별하여 풍속을 변화시키시고, 염치(廉恥)*를 장려하여 사기를 진작하시고, 도학을 숭상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 주시고, 제사지내는 법을 밝혀 번거로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상의 신(神)은 위에서 내려오고 백성은 아래서 순응하여, 삼강(三綱)*이 서고 홍범구주(洪範九疇)*가 펴지게 해서, 교화의 실질을 다해야 합니다.

주상께서 실질에 힘쓰는 노력이 참으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

- 교화(敎化) : 가르쳐 착한 길로 인도함. 앞에 나옴.
- 인(仁) : 공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로 보통 사람다움, 어짐, 사랑 등으로 풀이한다.
- 염치(廉恥) : 청렴결백하고 수치를 아는 것.
- 삼강(三綱) : 유교의 인관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덕목으로, 한나라 때 등장했으며 군위신강(君爲臣綱) · 부위자강(父爲子綱) · 부위부강(夫爲婦綱)이 그것이다.
- 홍범구주(洪範九疇) : 『서경』에서 우(禹)가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홍범은 대법(大法)을 말하고, 구주는 9개 조(條)를 말하는 것으로, 즉 9개 조항의 큰 법이라는 뜻이다.

심이 기뻐하여 조화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재앙이 소멸되어 경사가 겹쳐 이를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억만년 끝없는 아름다움은 주상이 실질을 힘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율곡이 왕도정치의 가능성을 찾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선조임금이 성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편에서는 하 · 은 · 주 삼대의 왕도정치를 펼치려면 실제적으로 임금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율곡의 의도는 자신의 주장이 공리공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임으로써 왕도정치가 실천 가능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먼저 그 내용은 '뜻을 세움' 곧 입지(立志)에서 출발하고 있다. 입지는 초학자들이 배우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또 선조임금께 올린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도 강조한 것인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학문을 시작함에 앞서 입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학문의 목표 또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의 다수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고 입신양명으로 출세하는 것만을 공부의 목적으로 삼아 생긴 혼란을 생각하면, 입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대학』의 8조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물(格物: 대상을 연구함) · 치지(致知: 앎을 이룸) · 성의(誠意: 뜻을 성실하게 함) · 정심(正心: 마음을 바르게 함) · 수신(修身: 몸을 닦음) · 제가(齊家: 집안을 가지런히 함) · 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 천하를 평화롭게 함)의 일이다. 물론 대학의 내용을

요약하여 중간 중간 삽입하였다.

그런데 율곡의 이 편에서는 제가(齊家)의 조목에 효친(孝親: 어버이에게 효도함)과 치가(治家: 집안을 다스림)로 나누어 말하였고, 치국(治國)의 조목도 용현(用賢: 현명한 자를 등용함), 거간(去姦: 간사한 자를 물리침), 보민(保民: 백성을 보호함), 교화(敎化: 백성을 가르쳐 변화시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평천하(平天下)의 조목은 다루지 않았다.

원래 '대학(大學)'이라는 학문이 고대의 치자(治者)를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은 『예기』의 한 편에 속했는데, 송나라 때에 유학자들이 독립적인 책으로 엮고 해설해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의 책이 되었다. 그 이후로 『대학』은 통치자의 교과서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앞에 소개한 『성학집요(聖學輯要)』의 구성체제도 이 『대학』 8조목의 순서를 따랐다.

어째든 율곡은 임금이 이렇게 하면 왕도정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임금이 하는 일을 한 마디로 말하면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유학은 적어도 자기 몸을 닦는 수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자기 가족조차도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 하물며 남이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데도 아직도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망언을 일삼는 관리가 있는가 하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특권을 누리려는 공직자도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은 물론이요 상대 파트너인 야당과도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

로 결정하고 따라 오라는 식의 정치 형태가 만연한데, 이것은 앞서 율곡이 말한 왕조시대의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부모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니까 필요 없지만, 머슴인 주제에 주인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군림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더구나 최고 지도자가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듣기 좋게 말하는 아랫사람을 한번이라도 의심해 보는 지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율곡의 이런 주장은 이상론이기는 해도, 현대정치가 비록 절차나 제도 면에서 민주화가 되었을지라도 정치의 실질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므로, 현대 정치가들에게는 일종의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 왕도정치의 이상을 구현할 수는 없다. 다만 지도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부자 기득권층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배려하는 공정한 자세가 아쉽다. 지도자는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는 이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정치가나 관리는 국민의 머슴인 민주시대가 아닌가?

欲用賢인댄 則博採而精鑑하고 明試而灼見하나니라.
욕 용 현 즉 박 채 이 정 감 명 시 이 작 견

其賢果不誣也면 則信之勿疑하고 任之勿貳하나니라.
기 현 과 불 무 야 즉 신 지 물 이 임 지 물 이

欲: 하고자 하다/用賢: 현명한 사람을 쓰다/博採: 널리 뽑다/精鑑: 정밀하게 살피다/明試: 분명하게 시험하다/灼: 밝다/見: 보다/果: 과연/誣: 속이다, 과장하다/勿: ~말라/疑: 의심하다/任: 맡기다/貳: 두 마음을 품다

해석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려고 한다면, 널리 발굴하며 정밀하게 살피고 분명하게 시험하며 환하게 보아야한다. 그 현명함이 과연 거짓이 아니라면, 그를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 맡겼으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欲去姦인댄 則言不逆耳者는 求著非道하고, 迹不明
용 거 간 즉 언 불 역 이 자 구 저 비 도 적 불 명

正者는 觀其隱慝하고, 無所建白者는 知其無憂國之
정 자 관 기 은 특 무 소 건 백 자 지 기 무 우 국 지

志하고, 愛惜爵祿者는 知其無死難之節하고, 不喜
지 애 석 작 록 자 지 기 무 사 난 지 절 불 희

道學者는 知其將禍士林하고, 論篤內荏者는 知其
도 학 자 지 기 장 화 사 림 논 독 내 임 자 지 기

訐以爲直하나니라.
알 이 위 직

去: 물리치다, 제거하다/姦: 간사한 사람/逆耳: 귀에 거슬림/求: 찾다/著: ~에서를 뜻하는 어조사/非道: 도리에 어긋남/迹: 자취, 행적/觀: 살피다/隱慝: 사특함을 숨기다/建白: 의견을 건의하며 말함/憂國之志: 나라를 걱정하는 뜻/愛惜: 사랑하고 아깝게 여김/爵祿: 벼슬과 녹봉/死難之節: 나라가 어려운 때 목숨을 바치는 절개/喜: 기뻐하다/將: 장차/禍: 화, 화를 입히다/士林: 선비사회/論: 논하다/篤: 독실하다/內: 마음/荏: 부드러운 모양/訐: 들추어내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다/以爲: ~으로 여기다/直: 곧다

해석

간사한 자를 물리치려고 한다면, 말을 듣기 좋게 하는 자는 도리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피고, 행적이 분명치 않거나 바르지 않은 자는 간특함을 숨기고 있는지 살피고, 건의하여 아뢰는 일이 없는 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없음을 알고, 지위와 봉록에만 애착하는 자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는 절개가 없음을 알며, 도학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장차 사림에 화를 입힐 사람임을 알고, 논의는 독실하지만 속은 유약한 자는 고자질하는 것을 강직한 것으로 삼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